

전남도,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진

396만㎡ 규모 1조2천억 투자
반도체·이차전지 중심지 육성
연구용역…개발 전략 등 마련
“첨단소재산업 집적화에 최선”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은 이

차전지, 반도체, 기능성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전남 지역 산업단지 108개소 중 약 98%가 분양 완료된 상황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총 396만㎡ 규모, 1조200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적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동부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자문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남도 산단 개발과를 비롯해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 구상 △기반시설 공급 방안 △입주 수요 및 경제성 △전략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와 더불어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소재산업 육성전략, 지역개발 연계방안, 수요·경제성 분석, 앵커기업 유치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해 국가산단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된다.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첨단소재 분야 기업 117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계획 반영 및 대선 공약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여건 변화에 발맞춰 미래 첨단소재 산업이 집적되도록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도로용 제설차량 활용 구제역 방역

발생 농가 주변 도로 집중

전남도가 도로용 제설차량을 이용해 무안군, 영암군 일원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주요 도로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15일 현재까지 영암과 무안에서 19건의 구제역이 발생,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보유 중인 도로용 염수액 분사 제설차량을 긴급 투입해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과 영암군 도포면, 군서면 등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주요 도로에 방역 약품을 살포한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액상 제설제 살포기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구제역 방역 약품을 적제 후 살포하며, 도내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방역을 지속 실시한다.

이는 기존 고정식 방역시스템에서 탈피



해 축사 인근 주요 도로에 대한 움직이는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방역 효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겨울철 제설차량을 동물방역에 활용하는 것은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방역부서와 건설부서가 머리를 맞대 추진한 협업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긴급 방역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교통공사, 전동차 객실 의자 전면 교체

5월까지 1호선 전체…색상 구분도

광주교통공사는 승객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전동차 객실 의자를 전면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노후화된 의자를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난연 소재의 시트로 새단장함으로써 객실 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객들이 좌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리별로 색깔을 구분(일반석 녹색, 교통약자석 남색, 임신부배려석 분홍

색)하고, 노후화된 의자의 프레임도 재도장하는 등 이용객 편의성과 전동차 내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모든 전동차를 대상으로 세균오염측정기(ATP)를 사용해 오염도를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살균소독과 고열 스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익문 사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체 작업을 기간 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대상 ‘전국 최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5ha(141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면적은 3275ha로, 전국 대상 면적 4283ha의 77%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신안 473ha, 나주 314ha, 강진 248ha, 해남 212ha, 진도 198ha, 함평 191ha, 고흥 180ha 등이다.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탄소배출 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8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저탄소 농산물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ESG경영 기업,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증 면적 6160ha(기존 1660ha·신규 4500ha)를 확보해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도서관정책 전국 우수기관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132곳 선정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곳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지역특화 등 18억 지원

전남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132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설립 희망 법인·단체의 공모신청을 받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현장심사와 실무위원회 발표심사 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군

지역특화 사업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4개 분야 총 132개 기업에 18억4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분야는 21개 기업에 총 61명의 고용을 지원하며, 사업개발비 분야는 34개 기업에 7억 원, 시설장비 분야는 68개 기업에 9억5200만 원, 지역특화 사업 분야는 9개 사업에 1억5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규 지정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개소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개소당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비법인 단체는 약정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규 지정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12개소로, 총 132개소로 늘었다. 새로 선정된 기업은 모싯잎, 옥수수, 매실 등 지

역 농산물 가공, 판매장 운영,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청년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신규 예비마을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 and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 확보, 시제품 개발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신규 마을기업 8개소 모두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을 거쳐 선정돼 제도 운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확대 운영

66종 624대 농기계 임대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영비 절감 및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며, 오는

26일부터 6월14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임대 대상은 광주 지역 농업인·시민 등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1인 1기종에 한해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주말은 임대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전화로 미리 예약할 경우 원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빌릴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 관리기 등 66종 624대

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 궁금한 사항은 용곡·용강·석정 임대사업소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적기 영농 추진과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은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야간 운행이나 음주작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